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헬릭스 네이션

HELLO NEXEN MAGAZINE

Summer 2019 Vol.76



[www.nexentire.com](http://www.nexentire.com)

#Tomorrow



CONTENTS

Tomorrow



2019 Vol.76

표지 이야기  
넥센인들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모여  
‘Tomorrow’를 이룹니다.  
넥센타이어와 함께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내일을 꿈꿔보세요.

06 Think Tomorrow 1  
‘THE NEXEN univerCITY’ 그랜드 오픈

12 Think Tomorrow 2  
‘THE NEXEN unverCITY’ 내부를 공개합니다

14 Zoom In NEXEN 1  
유럽 공장 제품 출하식 개최

16 Zoom In NEXEN 2  
제77회 넥센타이어 창립기념식

18 Zoom In NEXEN 3  
‘2019 넥센타이어 어워즈’ 개최

22 Zoom In NEXEN 4  
CITY LIVE! SEOUL

24 Zoom In NEXEN 5  
Championship 탁구 대회 개최

26 With NEXEN 1  
넥센타이어 창립 기념 글로벌 릴레이 CSR 활동

30 With NEXEN 2  
희망나누미, ‘장애아동의 날’ 행사

32 Moving Talk  
넥센인은 내 일을 사랑하나요?

34 People & People  
칭찬합시다

Lifestyle



38 NEXEN Value  
미래 사회는 이미 시작되었다

42 Movement Life  
스포테이너, 신수지 선수

46 NEXEN Club 1  
문화 회식 ‘Movie Day’

48 NEXEN Club 2  
연구소 협업 ‘Open Chatting Time’

50 Travel Tomorrow  
서늘한 여름을 만나다, 영남 알프스

56 We튜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 템포 쉬어가기

62 Culture Road  
넥센인을 위한 문화생활

66 NEXEN Think-big  
나만의 한 단어

68 I Can Save  
쓰레기 없는 세상,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Report

74 Best Partner  
타이어테크 포항점

78 Hero  
전기파트장 이정수 차장, 전기안전대상 수상

80 NEXEN News

82 참여 안내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9년 여름호 통권 76호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19년 7월 1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총령로 355 넥센타이어㈜ 담당 문화혁신팀 기획 및 출판 (주)하이미디어P&I (02-795-3364) 디자인 최은정, 문선미, 김지애 사진 사진과책 교정 이은실 프로세스 (주)하이테크컴 (02-741-3377) 인쇄 (주)정민 P&P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새롭게 열어가는  
내일의 중심에  
넥센타이어가 있습니다



# THE NEXEN univerCITY

## 넥센타이어, 넥센중앙연구소 그랜드 오픈

4월 30일 넥센중앙연구소 '더 넥센 유니버시티(THE NEXEN univerCITY)' 그랜드 오픈 행사가 개최되었다. 축하와 다양한 공연 속에 공개된 넥센중앙연구소 오픈 행사의 생동감 넘치는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글 문화혁신팀 김희진 대리 정리 이다영 사진 이맹호



넥센타이어가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될 넥센중앙연구소 ‘더 넥센 유니버시티(THE NEXEN univerCITY)’ 오픈 행사를 4월 30일 개최했다.

이날 오픈 행사에는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 강호찬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강호갑 회장 등을 비롯한 내외빈 및 넥센중앙연구소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갈 ‘THE NEXEN univerCITY’가 내딛은 첫걸음에 함께해보자.



### 소통과 협업의 시대를 반영하다

‘THE NEXEN univerCITY’는 2년여간 총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서울 마곡 산업단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57,171㎡ 규모의 연구동과 사무동을 포함한 2개 동으로 건립됐다.

녹지로 둘러싸인 중정(Courtyard)과 다중나선형 그린루프 산책로(Multi-helix Green Roof)는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협업을 중시하는 넥센타이어의 기업 문화를 담은 곳으로 ‘THE NEXEN univerCITY’의 핵심 공간이다. 건물 외부에는 타이어 트레드 문양을 형상화해 업의 특성을 나타냈으며, 로비에는 가로 30m, 세로 7m의 미디어월을 마련해 이곳의 콘셉트를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영상으로 표현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설비, 옥상 녹화에 의한 열 손실 저감 등이 설계된 친환경 빌딩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았다. 업무 공간은 집중과 협업에 최적화된 오픈 이노베이션 공간으로 구성해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 더불어 어린이집, 피트니스센터, 북카페, IT 데스크 및 휴식 공간도 곳곳에 배치해 쾌적한 근무 환경을 실현했다.

다양한 연구시설도 주목할 만하다. OE/RE 제품 설계를 비롯해 AI 기술 및 가상 Tire 기법 연구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예측·구현하는 연구개발센터, 타이어와 차량 매칭에 대한 성능을 연구·평가하는 성능연구센터, 그리고 고무 및 다양한 재료 소재의 나노(Nano) 영역과 매크로(Macro) 영역에 대한 분석·연구를 수행하는 재료연구센터를 설립해 차세대 기술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 새 시대를 향한 가치를 지향하다

'THE NEXEN univerCITY'는 핵심 가치인 '도전', '창의', '협력'과 경영철학을 담은 '넥센 유니버스'와 '시티'를 결합한 콘셉트로 만들어졌으며,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누비며 넥센의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및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까다로운 요구 사항과 급변하는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해 R&D 역량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 분포된 연구소들을 통합 관리하는 연구개발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넥센타이어 강호찬 부회장은 "이곳 중앙연구소는 세계 그 어떤 기업보다 빠르게 성장해온 넥센의 성장 DNA와 정체성이 결집된 곳"이며,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와 미래 가치를 만들어냄으로써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움직임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글로벌 넥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창립 77주년을 맞은 넥센타이어는 중앙연구소 건립을 기점으로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글로벌 4대 거점을 완성했다. 지난해 유럽과 미국 R&D센터 신축 확장에 이어 유럽 공장 가동, 그리고 서울 마곡에 넥센중앙연구소를 오픈함으로써, 미래 성장을 위한 '글로벌 넥센'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㉞





넥센중앙연구소 훑어보기

# THE NEXEN univerCITY

## 내부를 공개합니다

2년여의 공사 기간에 걸쳐 완공된 넥센중앙연구소 'THE NEXEN univerCITY'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고려한 공용 공간부터 창의·협력을 유도하는 소통의 연계 공간과 외부인들에게 개방되는 혁신의 공간까지. 살펴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연구소 내부를 넥센인들에게 소개합니다.

글 이다영 사진 이명호



## Relaxation

업무 외 시간의 힐링을 책임질 다양한 공간을 소개합니다.

### ① Garden Market

뭐니 뭐니 해도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쾌적하고 깔끔한 식당은 넥센인들의 꿈 같은 점심시간을 풍족하게 채워줍니다.

### ② 휴식 공간

중앙정원 연결통로 앞 휴식 공간은 넥센인들이 건물 안에서 일광욕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①



②

## Office

소통과 협업, 집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에서 넥센인들의 업무 능력을 펼쳐보세요.

### ① 이정표

시티를 콘셉트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이정표는 넓은 넥센중앙연구소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넥센인들의 발길을 이끌어줍니다. 길을 찾느라 헛되이 쓰는 시간은 이제 안녕.

### ② 사무실 내부

신사옥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사무실 내부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깊이 있고 충분한 휴식은 업무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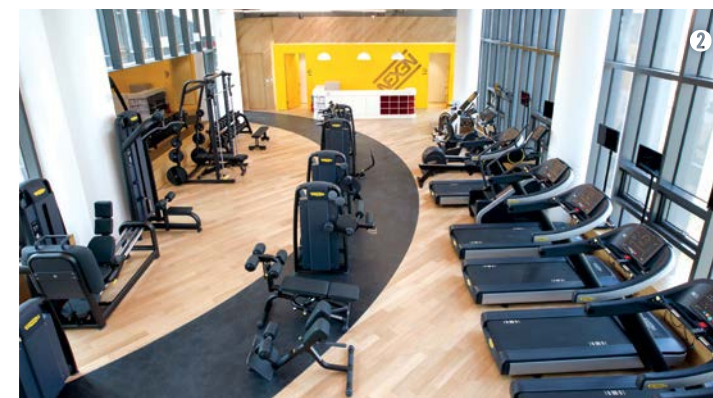
①



②



①



②

## Health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 모두 놓치지 마세요.

### ① 북카페

1층 로비를 따라 정면으로 들어오다 보면 마주치는 개방된 공간 북카페. 휴식 시간에 넥센인들이 시간을 보내기에도, 외부 손님들이 잠시 쉬어가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 ② 피트니스센터

THE NEXEN univerCITY는 넥센인들의 건강까지 책임집니다. 깔끔한 샤워실까지 겸비한 피트니스 공간은 운동이 필요한 넥센인들의 운동 욕구를 자극합니다. ㉞



# 넥센타이어 유럽 공장 본격 가동, 제품 출하식 개최

글 문화혁신팀 김희진 대리



넥센타이어가 유럽 공장의 제품 출하식을 개최하며 유럽 시장 공략의 뜻을 올렸다. 넥센타이어는 4월 24일 강호찬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코 자테츠에 위치한 유럽 공장에서 제품 출하 기념식을 갖고, 공장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커팅식에 이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들어오는 타이어를 한 개씩 적재하는 타이어 로딩(Loading)이 진행됐다. 강호찬 부회장은 “2014년 이곳 유럽 자테츠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고 5년 후인 오늘 제품 출하식을 하기까지 많은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며, 이 공장이 유럽 전역에서 넥센타이어를 대표하는 공장이 되기를 기대해본다”라고 밝혔다. ㉠





넥센인들이 함께  
만들어온

77년의 역사

# 제77회 넥센타이어 창립기념식

넥센타이어가 창립기념일을 맞아  
지난 4월 30일, 양산 본사, 창녕 공장,  
넥센중앙연구소에서 창립기념식을 진행했다.

글 문화혁신팀 김희진 대리  
사진 YP기업문화팀 성경석 과장,  
CP기업문화팀 변상협 과장, 이맹호 실장



## 넥센타이어 양산 본사



## 넥센중앙연구소



## 넥센타이어 창녕 공장





# 전국 대리점주 초청 ‘2019 넥센타이어 어워즈’ 개최

글 아시아영업기획팀 기획파트 조성민 대리



## #01

아시아영업BG가 5월 17일 서울 마곡에 위치한 중앙연구소에서 대리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2019 넥센타이어 어워즈'를 개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넥센타이어의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전국 대리점주 및 협력사를 초청해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행사인 '2019 넥센타이어 어워즈'는 올해로 13회째 매년 개최되어 아시아영업BG의 주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넥센타이어의 마곡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더 리부트(THE REBOOT)'라는 콘셉트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넥센타이어와 대리점 간의 상호 발전과 신뢰를 약속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먼저 1부 행사장소인 대강당 '월석홀'에서 멋진 대북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행사의 막이 올랐다. 2019년 출시될 신제품 설명과 함께 한국지역 영업 추진 방향 및 OE 현황에 대해 참석자들과 내용을 공유했다. 아시아영업BG 박강철 BG장은 "제2 성장의 원년이자 마곡 시대 개막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아 각각의 시장에 맞는 영업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장 맞춤형 영업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02

2부는 중정으로 이동해 각 지역별 우수 거래선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대상 호명만을 앞둔 순간, 깜짝 손님이 중정에 등장했다. 사전 일정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웠던 강호찬 부회장이 세그웨이를 타고 등장한 것이다. 강 부회장은 감사 인사와 함께 대상 시상 후 만찬과 축하 공연을 함께하며 참석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 종료 후 한 대리점주는 “매년 개최된 ‘넥센타이어 어워즈’지만 올해는 거래선과 임직원들이 함께 넥센의 신사옥인 넥센유니버시티에서 즐길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행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넥센타이어와 넥센타이어 대리점이 새로운 출발점에서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㉞



# 넥센타이어와 맨시티 팬의 뜨거운 함성 CITY LIVE! SEOUL

글/사진 전략마케팅 이연주 과장



4월 20일 넥센타이어와 함께하는 맨체스터시티 FC(이하 맨시티)의 글로벌 이벤트인 <CITY LIVE! SEOUL>이 KBS 아레나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CITY LIVE! SEOUL>은 맨시티가 주최하고 공식 후원사인 넥센타이어가 함께한 생중계 단체 관람 이벤트다.

이번 <CITY LIVE! SEOUL>에는 넥센타이어 공식 페이스북과 넥센타이어×맨체스터시티 파트너십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한 팬들을 포함해 총 1,000여 명의 시티즌들이 함께했다. 행사장에 도착한 팬들에게 응원 도구 및 기념품이 담긴 웰컴 기프트를 나눠주었고, 스포티비 소속 아나운서의 사회로 축제 분위기 속에 행사가 시작됐다.

이날은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맨시티와 토트넘 홋스퍼 FC(이하 토트넘)의 빅 매치가 열리는 날이라 경기 전부터 열기가 대단했다. 경기 시작 전부터 그 열기에 호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펼쳤다. 넥센타이어는 맨시티 호셉 과르디올라 감독의 등신대 포토존을 마련했다.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은 후 프린팅을 제공했고, 사진에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여 응원 보드에 부착하는 이벤트도 운영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 보드 앞을 떠나지 못했는데, 맨시티의 주장 빈센트 콤파니(Vincent Kompany) 선수가 직접 착용했던 레플리카 주장 완장을 경품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많았던 것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 맨시티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줄리온 레스콧(Joleon Lescott) 선수와의 세션이었다. 줄리온 레스콧 선수는 이번 행사를 위해 한국을 처음

으로 방문했다. 그가 등장하자 카메라 셔터와 휴대폰 플래시가 마구 터지고 팬들은 큰 환호성으로 맞아주었다.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묻고 답하는 시간과 팬들과 함께하는 3:3 온라인 축구 게임도 진행했다. 줄리온 레스콧 선수는 이날 한국 로컬 팬들의 열기에 무척 감동했다고 한다.

풍성한 이벤트를 즐기는 사이 맨시티와 토트넘의 경기가 시작됐다. 이번 경기는 시작부터 치열하게 진행됐다. 이벤트로 흥이 오른 팬들의 응원 목소리는 행사장 벽을 뚫고 나가는 듯했다. 이런 뜨거운 응원 덕분인지 맨시티의 필 포든 선수가 경기 시작 5분 만에 멋진 골을 터뜨리며 경기 분위기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하프타임에는 SNS 해시태그 이벤트를 통해 지정해시태그와 함께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려준 팬들 중 추첨하여 맨시티 구디백, 선수 사인 액자 등을 증정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선제골을 넣어서인지 팬들의 반응과 참여도 대단했다. 이날 토트넘과의 경기는 1:0으로 맨시티가 깔끔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CITY LIVE! SEOUL>을 함께 즐긴 팬들은 승리의 기쁨을 오래도록 나누며 잊지 못할 추억을 가슴에 품었다. 경기와 다양한 행사가 끝난 후 돌아가는 시티즌들의 뒷모습에서 아쉬움이 역력하게 느껴졌다. 맨시티를 응원하는 하늘색 물결로 가득 찼던 <CITY LIVE! SEOUL>! 앞으로 남은 맨시티의 경기들도 넥센타이어가 시티즌과 함께 열심히 응원할 것이다. ㉞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더 넥센 유니버시티 1층 로비에서 탁구 대회가 열렸다. BG/BS별 대표 선수를 선발, 남자단식 22팀, 남자복식 22팀, 여자복식 6팀, 혼합복식 7개 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 넥센중앙연구소에서 처음 개최된 탁구 대회는 19일 결승전을 치르며 드디어 승자가 가려졌다. 남자단식우승은 전략마케팅 BS의 김남희 대리(전략마케팅팀), 남자복식우승은 GHR BS의 이재엽 팀장, 정재환 차장(문화혁신팀), 여자복식우승은 아시아영업BG 이선미 사원, 이유진 사원(영업지원팀), 혼합복식우승은 윤리경영BS 이지혜 대리(경영진단팀), 조유민 대리(법무팀)가 차지했다. 결승전 시상식 이후 더 넥센 유니버시티 중정에서 치맥 파티를 열어 직원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㉞



## THE NEXEN univerCITY Championship 탁구 대회 개최

글 문화혁신팀 김희진 대리







창립 기념 주간 맞아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펼쳐

# 국내 및 해외 사업장에서 릴레이 사회공헌활동



창립 77주년 기념 릴레이 CSR

넥센타이어는 지난해부터 사회공헌활동을 해외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소통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국내 사업장에서는 경로 배식 봉사활동을 비롯해 공공시설 환경정화활동과 헌혈 캠페인을 시행했으며, 해외 사업장에서는 헌혈과 지역 정화,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글 문화혁신팀 김희진 대리

넥센타이어가 창립 77주년을 맞아 국내외 사업장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넥센타이어는 본사와 공장이 위치한 양산시의 양산시사회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헌혈 활동도 펼쳤다. 창녕 공장에서는 유채꽃 축제가 한창인 남지 유채단지과 남지 체육공원 일대를 정화했으며, 중국 청도 공장에서도 헌혈 활동을 하며 따뜻한 온기를 나눴다. 또한 넥센중앙연구소 임직원들이 헌혈 활동에 동참했으며, 유럽 공장에서는 인근 공원과 거리 정화 캠페인에 나섰다. 미국 R&D센터에서는 저소득 소외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나눔 활동을 펼쳤다. <sup>N</sup>







① 미국 R&D센터에서 진행된 교육 나눔  
② 양산에서 진행된 배식 봉사  
③ 창녕에서 진행된 환경 정화

④ 체코에서 진행된 환경 정화  
⑤ 청도에서 진행된 헌혈





넥센타이어 노사합동 '장애아동의 날' 행사

# 희망 나누기 웃음 곱하기

5월 24일 경남 양산에서 '장애아동의 날' 행사가 열렸다. 가정의 달을 맞아 사단법인 양산시장애인부모회와 양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 넥센타이어의 노사가 함께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글 정유미 사진 서봉섭



## 넥센타이어 희망나누미 동호회, 봉사단체상 수상

경남 양산에서는 매년 5월 '장애아동의 날' 행사가 열린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편견의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행사에는 매년 지역 내 장애아동들과 가족,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여러 단체의 특수교사와 복지사, 봉사자들이 참여한다. 벌써 12회째를 맞이하는 행사의 올해 슬로건은 '우리들의 꿈과 희망의 날'. 올해는 양산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양산지사, 숲속유치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적십자회 등 많은 지역단체의 후원이 이루어졌으며, 넥센타이어는 노사가 함께 참여했다.

행사는 풍물놀이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축하에 이어 지난 한 해 지역 장애아동들을 위해 봉사한 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는데, 넥센타이어 희망나누미 봉사동호회가 봉사단체상을 수상했다. 이어서 본격적인 행사인 명랑운동회가 열렸다. 운동회는 참여한 모든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뛰고 달리며 웃음 가득한 시간이었다. 희망나누미 봉사동호회 회원들도 행사 전반에 참여해 함께했는데, 특히 동호회에서 마련한 플라로이드 사진 촬영 이벤트가 인기를 모았다. 동호회 회원인 문정섭 파트장은 "누구나 어렸을 때 소외되었던 경험이나 기억이 있다"며 "그 시절의 저를 다시 만나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다"는 감회를 풀어놓았다. 운동회가 끝난 후에는 함께 어울려 식사하는 시간이 이어졌고, 장기자랑 시간도 마련되었다.

## 넥센타이어, 노사합동 사회적 책임 실천

2017년 노사정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식을 시작으로, 2018년도 봉사동호회 창단 등 넥센타이어는 지역내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있으며, 이번 노사합동 봉사 활동에는 양창수 글로벌생산BG장, 박주홍 노조위원장, 김재돈 인사지원BS장을 비롯한 생산본부 직원들과, 노동조합간부, 봉사동호회, 노사협력팀이 함께 참여한 뜻깊은 자리였다.

넥센타이어 희망나누미 봉사동호회는 출범한 지 5개월

밖에 안 된 신생 동호회다. 100여 명의 회원들은 매주 목요일 도시락 배달을 통해 지역사회 가까이에서 봉사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날' 행사에서는 보라색 넥센타이어 조끼를 입고 현장 곳곳에서 프로그램 참여는 물론 안내와 청소까지 굿은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동호회가 지원한 행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시상식에서 표창장을 받은 희망나누미 봉사동호회 박경만 회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아들과 함께 참여해 더 의미 깊은 하루였습니다. 넥센타이어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지역 사회와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광석 봉사회 사무처장은 앞으로의 책임과 역할이 더 크다며 스스로 다짐을 밝혔다. "우리 동호회 전체가 똘똘 뭉쳐서 더 즐겁고 재미있게 봉사하라는 뜻으로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나눔 실천에 더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주홍 노조위원장 역시 행사 축하에서 넥센타이어가 양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선도 기업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나누미 봉사동호회는 단순히 친목만 다지는 동호회가 아니다. 지역과 함께 나누는 기업,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넥센타이어를 만들어가는 넥센인의 한 표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넥센타이어 가족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sup>㉠</sup>





# 넥센인은 내일을 사랑하나요?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직장, 바로 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2019년도 절반을 지나 달려온 지금, 내 일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 나는 얼마나 즐겁게 일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내 일을 사랑하는지, 자유롭게 넥센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리 이다영

## Q 나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돈을 버는 수단	94명	29.19%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	96명	29.81%
자부심	67명	20.81%
의미를 찾아가는 중	53명	16.46%
기타	12명	3.73%

- 가정을 지키기 위한 발판 · 강성남

## Q 내 일을 하며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모든 일과를 수행하고 퇴근할 때	84명	31.7%
일을 하고 있는 매 순간	4명	5.28%
주도적으로 맡은 일이 두드러진 성과를 냈을 때	148명	55.85%
기타	19명	7.17%

- 워라밸이 잘 지켜질 때 · 정창두

## Q 내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일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시도한다	115명	39.25%
인맥을 쌓아 회사 내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	58명	19.8%
선배님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업무 파악에 힘쓴다	81명	27.65%
지금도 좋다. 적당히 먹고살 정도면 된다	16명	5.46%
기타	23명	7.84%

- 선진 업체의 기술을 많이 찾아본다 · 김기현
- 실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메일 발송/결재 요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번 더 살펴본다 · 임영민
- Why? 에 대한 What? 을 How? 로 · 염규생

## Q 내 일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 고수가 되고 싶다 · 전찬민
- 밥값은 하고 있다는 안도감 · 이수경
- 평범한 삶 영위 · 김형모
-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탁세원
- 설비와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나아가 여러 국가에 넥센을 알리고 싶습니다 · 예범희
- 인류의 좀 더 나은 삶 · 송창윤
- 저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습니다 · 김진철
- 돈 모아서 결혼하기 · 이수진
- 후배, 동료들이 언제까지 함께 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부서에서 다른 부서나 다른 회사에 가더라도 뒤지지 않는 역량을 발휘하도록 뒷받침해주고 싶다 · 임범준
- 나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되는 것 · 이경주

## Q 내 일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주세요.

- 기업의 규모 및 영향력이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 홍민택
- 매일이라는 일상이 있도록 해주고, 일을 하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때문 · 한진희
- 엔지니어로서 풀어가는 재미가 있으며, 일 자체가 재미있음 · 박성희
- 사람은 살아 있는 이상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란 저에게 맡겨진 가장 값지고 고귀한 노동일 것입니다 · 권아영
- 당연하니까 · 황도인
-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니까 · 채동엽
- 항상 새롭기 때문이 제일 크고,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서 좋다 · 이민주
- 어제나 내일보다는 오늘을 열심히 살고 싶어서 · 박재우



##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칭찬합시다

직장 생활에서 힘이 되는 응원과 조언은 가뭄의 단비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적십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기억에 남지요.  
늘 힘이 되어주는 동료에게 마음속 진심을 전해보세요.  
〈헬로우 넥센〉이 아껴두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정리 이다영



▲ 김시영 사우

### (CP) 생산관리팀 김시영 사우에게 (CP) 생산관리팀 원자재관리계 김건호 사우가


김시영 사우는 덩치가 크고 과묵한 사람이라 처음에는 다가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을 때는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웃음) 특공대 출신이라 그런지 주먹도 굉장히 큼니다. 그런 김시영 사우와 같은 조로 근무하게 되었고, 카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형으로서 진심 어린 조언과 응원을 해주어 과묵한 사람이지만 생각이 깊고 소신 있는 내면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요. 또 만능 스포츠맨이라 탁구면 탁구, 볼링이면 볼링, 못 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로 여가 시간에 매일 운동을 하며 자신을 단련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기회가 될 때마다 규모가 큰 지역 탁구 대회에 출전하는데, 패배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은 같은 남자가 봐도 정말 멋지답니다.

이번 사내 탁구 대회에서도 우승했으니, 분명히 지역 대회도 본선을 넘어 우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무조는 바뀌었지만 계속 응원할게요!

### (CP) 생산관리팀 김종호 과장에게 (CP) 생산관리팀 원자재관리계 김건호 사우가

처음 분임장을 맡았을 때 설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았던 2년 전의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 저에게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CP) TPM파트 김종호 과장님께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개념과 연결고리를 쉽게 풀이해서 제가 이해할 때까지 잘 설명해주시고, TPM 사무국에 들르면 항상 환하게 반겨주시며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과장님 덕분에 적극적으로 TPM 활동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분임조가 개선한 사례들이 사내 개선 리스트에 등록된 것을 보면 지금도 뿌듯하답니다.

김종호 과장님은 여행을 매우 좋아하셔서 다양한 경험담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해외로 배낭여행을 같이 다녀왔는데, 현지 역사도 많이 아시고 현지 사람만 아는 음식과 체험도 잘 알고 계셔서 함께 경험하며 지루할 틈이 없는 여행을 즐겼습니다. 여행 전문가와 같이 다닌 느낌이었을까요? 보다 넓은 시야와 보람 있는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김종호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김종호 과장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흐름 속에 미래

# 미래 사회는 이미 시작되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열려 있는 가능성만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는 과거의 흐름을 통해 예측했던 미래였듯이, 이제 더 먼 미래의 일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좀 더 근접한 미래 예측을 위해 미래채널 MyF 황준원 대표가 현재 변화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준다.

글 황준원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었다.”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그린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대사다. 그 격변의 시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한국 사회를 휩쓸고 지나가며 마치 기술의 발달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초연결 세상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에 불안을 느꼈던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래 사회의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어쩌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보다 더 큰 변화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 인구 감소의 시작

우리는 지금까지 인구가 늘 증가하는 시대를 살아왔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연간 출생아 수는 약 100만 명이었다. 학교에서는 교실이 모자라 오전반, 오후반을 나눠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2018년 한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약 32만 7,000명. 그리고 같은 해 사망자 수는 약 29만 9,000명이다. 만약 2019년 출생아 수가 3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사망자 수가 30만 명을 넘게 된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가 시작되는 것이다.

누군가는 인구 감소를 축복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줄어들면 경쟁이 완화되고 사람 귀한 줄 아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우리의 대입 경쟁은 늘 치열했고, 최근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괴로워한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은 현재 청년들의 완전고용 시대를 보내고 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취업은 다 되기 때문에 대학교는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 다닌다는 일본 대학생의 인터뷰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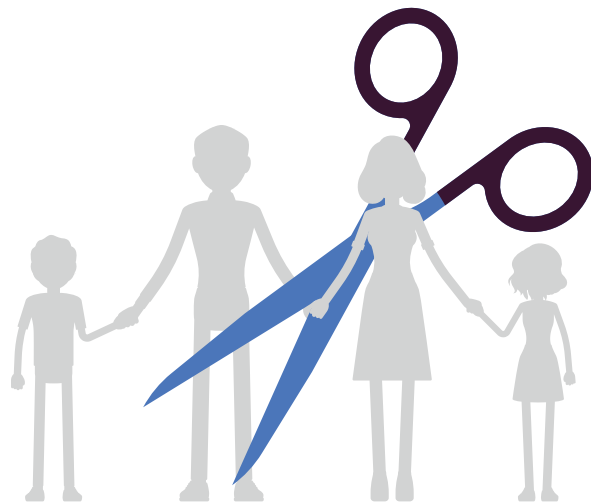
하지만 인구 감소를 축복이라고만은 생각할 수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연령별로 균형 있게 감소하는 것이 아닌 '고령화형 인구 감소'이기 때문이다. 고령자들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세금 부족, 젊은 노

동력 부족, 내수시장 축소, 사회의 역동성 감소, 국방력 약화 등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따라 일본에서는 편의점에 무인계산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고령화에 따라 부족해진 간병인 수는 베트남인들로 채우는 한편, 여성들도 택배·농업 등의 업무 분야에 참여하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결국 인구가 증가하던 나라에서 감소하는 나라로, 젊은 사람들이 대다수이던 나라에서 노인들이 대다수인 나라로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교육, 산업, 서비스, 정책 등 모든 것들이 함께 변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이것이 미래 변화를 대비할 때 인구 변화 요소를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 가족의 해체와 나 홀로 사회

4인 가구,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중 한국에서 가장 많은 가구 구조는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1인 가구다(4인 17.7%, 3인 21.2%, 2인 26.7%, 1인 28.6%, 통계청, 2017). 불과 2005년까지만 해도 4인 가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가구 구조였지만, 그 비율은 급속도로 쪼그라들었다. 결국 결혼식장, 패밀리 레스토랑, 대형 가전제품 등 기존 전형적인 가족 구조와 관련된 산업들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대신 그 자리는 '솔로 이코노미', '1코노미'라고 불리는 1인 가구 산업들로 대체되고 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노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직접적인 인간관계는 점점 단절되고, 심지어 '사람이 필요 없는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까지 느껴진다.



과거 인간관계가 중요했던 이유는 양육, 교육, 직장, 보험 등 거의 모든 역할을 가족과 친구가 담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그때 필요한 일들은 개인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해결한다. 이사를 가더라도 친구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삿짐 센터를 부르는 것처럼 말이다. 게다가 사람보다 더 재미있는 가상의 친구인 디지털 콘텐츠들이 발달하면서 친구와 애인을 만나는 일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3M의 조사에 따르면 성관계보다 스마트폰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한국 18~34세 응답자 비율은 36%였다고 한다. 관계 유지에는 시간, 돈, 노력이 필요하니 집에서 유튜브 개인방송, 넷플릭스 등을 보며 혼자 놀겠다는 것이다.

## 커져가는 가상세계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대 변화는 가상세계의 확장이다. 이제 사람들은 가상의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며 혼자 놀 뿐만 아니라 가상이 혼합된 생활 자체에 익숙해지고 있다. 과거 1990년대 이전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 나면 사람들은 '저것은 실제다, 컴퓨터 그래픽이다' 하며 설전이 오가곤 했다. 하지만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최신 할리우드 영화를 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설전을 벌이지 않는다.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미래

세상은 그런 일들이 일상생활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이상 실제와 가상을 구별할 수 없어 실제와 가상이 자연스럽게 혼합된 세상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실제 세상에 가상의 물체를 혼합하는 증강현실(AR) 기술은 최근 카메라로 공간을 분석해 현실과 가상을 더욱 자연스럽게 섞기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홀로렌즈(Hololens)'라는 안경을 쓰면 공간을 스캔해 실제 우리 집 벽을 뚫고 외계인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식이다. 또한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구글은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전화를 걸어 식당이나 미용실 예약을 대신 해주는 '구글 듀플렉스'라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했으며, 최근 중국 신화통신에서는 뉴스 앵커를 대신할 AI 뉴스 앵커가 데뷔하기도 했다. 앞으로 수년 후에는 우리가 전화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거나 화면에서 사람의 얼굴을 보더라도 그것이 실제 사람인지 가상인지 구별하기 힘든 시점이 올 것이다. 마치 최신 할리우드 영화를 볼 때처럼 말이다.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혼란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가상은 사람들에게 돈과 시간, 노력을 아끼게 해주며, 실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무한 복제가 가능해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장점 역시 가지고 있다. 결국 미래에는 '가상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다. ㉞



스포테이너 신수지,

# 그녀를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힘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히어로는 다름 아닌 신수지였다. 동아시아 최초, 자력으로 따낸 올림픽 출전권을 들고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침없이 매트 위를 누볐던 열여덟 소녀. 은퇴 이후에는 방송과 운동의 경계를 넘나들며 스포테이너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녀를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그것은 무엇일까?

글 김지수 사진 이맹호



## 미래는 언제나 열려 있다

올림픽 무대를 누볐던 전직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의 귀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뤄졌다. 2007년 그리스에서 열린 세계리듬체조선수권 대회에서 동아시아 최초, 자력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전체 12위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남기며 국내 리듬체조계에 희망의 불씨를 던진 신수지. 코치나 해설위원으로 전향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은퇴 이후 그녀를 볼 수 있었던 곳은 다름 아닌 TV의 한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2012년 은퇴 이후 공허함에 시달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온종일 훈련에 매진하며 살았던 저에게 그 시간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친구들과 여행도 가보고 맛집도 찾아다녀 봤지만 그때뿐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댄싱 위드 더 스타>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왔다. 현역 운동선수 시절에는 운동선수가 방송에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이나 인터뷰 외에는 방송 출연을 일체 거부했지만, 은퇴 이후 그녀에게는 새로운 자극과 활력이 절실했다.

“전혀 다른 분야에 소속된 사람들이 모여 춤을 연습하고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춤은 그동안 제가 해온 것과는 다르면서도 몸을 사용한다는 점이 비슷해 관심이 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늘 혼자 고독한 싸움을 해야 했던 리듬체조와 달리 파트너와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성해가는 방송의 매력도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죠.”

## 현재의 최선이 미래를 이끈다

타고난 끼와 재치 있는 입담, 솔직 담백한 성격으로 이 프로그램 이후에도 방송국에서의 러브콜은 계속 이어졌다. 벌써 방송 데뷔 7년 차인 그녀는 최근 JTBC 뷰티 프로그램 <뷰티룸>의 MC로 합류했고, 유튜브에서는 ‘신수디채널’의 크리에이터로, K쇼핑의 머천다 이저(MD)이자 쇼호스트로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제100회 전국체전’의 홍보대사로 임명되었다. 방송뿐만 아니다. 신수지는 운동선수로서의 타고난 근성과 승부욕을 바탕으로 은퇴 이후 볼링, 골프, 테니스 등 다른 종목의 운동에도 끊임없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특히 전직 체조요정이 어느덧 데뷔 5년 차의 프로 볼러라는 사실은 흥미롭다.





“체조를 할 때는 다른 운동을 할 시간도 없었지만, 부상의 위험 때문에도 못 했어요. 그러다 은퇴하고 친구 따라 볼링장에 갔는데 제 실력이 예상외로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체조에 볼이란 종목도 있고, 나름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대우를 받으니 잠도 오지 않았고, 눈을 감으면 핀들이 떠다니더라고요(웃음)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그 다음 날부터 혼자 볼링장을 찾아가 오픈 시간부터 마감 시간까지 매일 30게임가량 쳤어요.”

그렇게 신수지는 한 달 만에 에버리지 180을 달성했지만, 전문적인 교육 없이 혼자 훈련하다 보니 한계를 느꼈다. 곧바로 톱 볼러인 박경심 프로를 찾아가 훈련을 받았고, 10개월 뒤 열린 프로 테스트에서 프로로 데뷔했다.

“프로라고는 하지만 사실 제 실력은 프로 중 가장 하위에 있어요. 바닥에서 1등인 셈이죠.(웃음) 골프 역시 함께 치는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을 정도의 실력이에요. 그런데도 이 운동들을 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체조는 늘 1등을 해야 하고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했지만, 볼링이나 골프는 그런 압박감 없이 온전히 운동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신수지는 방송과 운동선수를 병행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스포테이너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은 여전히 운동선수라

고 말한다.

“스포츠테이너는 현재의 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운동 못지않게 방송을 하는 것도 즐겁고 적성에 맞지만, 지금 제가 방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운동을 했기 때문이죠. 즉 지금의 저를 존재하게 해준 것이 운동이기에, 전 운동선수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 그녀를 나아가게 하는 힘, 가족

인격과 정체성이 완전히 자리 잡히기 전, 인생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다음 챕터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겪는 혼란은 생각 이상으로 크다. 때로 그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어 현재와 미래를 갇아먹기도 한다. 하지만 신수지는 두 번째 챕터 역시 잘 가꾸어나가고 있는 듯하다. 리듬체조 선수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경의 순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쓰러지지 않고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부모님이라고 말한다.

“초등학교 1학년 때 TV에서 우연히 빨간 리본을 들고 연기하는 리듬체조 선수를 보고 반했고, 3년을 설득한 끝에 겨우 허락을 받아냈어요. 이미 몸이 굳기 시작할 무렵 리듬체조를 시작했던 만큼 남들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지만 그런 시간이 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리듬체조가 너무 좋았으니까요.”


실력이 쌓일수록 꿈과 목표도 커져갔다. 팀에서 막내였던 신수지는 처음엔 팀 내 선배들을 이겨보자 생각했고,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주니어 대회 1등을, 그 다음엔 전국 대회 1등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다 보니 목표는 어느덧 올림픽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금전적인 지원이 거의 전무했던 비인기 종목인 탓에 훈련에 드는 모든 비용과 대회 참가 비용까지 자비로 총당해야 했다. 무엇보다 러시아 유학 시절,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훈련 비용을 대기 위해 집을 파는 것도 모자라 무리하게 일하던 그녀의 아버지가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신수지는 올림픽이라는 목표를 향해 더욱 지독하게 나아갔다. 그 결과 대한민국 최초로 자력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을 뿐 아니라 올림픽에서 12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금의환향할 수 있었던 것.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를 갖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움직입

니다. 저 역시 누구보다 승부욕이 강하고 꿈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저의 부모님이예요. 자동차의 엔진이 타이어를 움직이게 하듯이, 부모님은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저의 엔진인 셈이죠. 은퇴 후 방송을 하고 받은 출연료로 부모님께 첫 용돈을 드리면서 느꼈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해요. 내가 직접 번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과 생활비를 드리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뿌듯하더라고요(웃음) 오랜 시간 저를 뒷바라지하시느라 삶을 바치셨던 부모님께 이제는 제가 보답하며 살고 싶어요.”

신수지는 앞으로 체조 꿈나무를 양성할 꿈도 갖고 있다. 그래서 체조 자선 캠프를 열거나 대회 해설을 하는 등 체조와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

“성장기에 체조만큼 좋은 운동이 없어요. 체형 교정과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도구를 사용하니 집중력과 두뇌 향상에도 좋은 운동이죠. 체조는 전문적인 선수만 하는 운동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생활 스포츠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건강한 회식 문화

# ‘Movie Day’

5월 14일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점 사롯데에서 CA(Change Agent)가 주최한 무비 데이 이벤트가 열렸다. 이날 이벤트에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BG장부터 사원까지 총 32명의 넥센 사우들이 참여해 영화와 함께 치맥을 즐기며 건전하고 즐거운 회식 문화로 소통했다.

글 인재개발팀 이도연 사원 사진 문화혁신팀 김희진 대리



Hello NEXEN



## 어벤저스와 함께한 유쾌·상쾌·통쾌 ‘무비 데이’

넥센의 건강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자 결성된 넥센 CA(Change Agent)가 지난 5월 넥센 사우들을 대상으로 무비 데이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번 이벤트에는 연구개발BG, T&S영업BS, OE해외영업2팀, 신시장개발TFT, 문화혁신팀 등 5개 팀이 사연을 담아 신청했고, BG장부터 사원까지 총 32명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됐다. 이벤트에 선정된 넥센 사우들은 5월 14일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점 사롯데에 모여 최근 흥행 열풍을 일으킨 영화 <어벤저스: 엔드게임>을 관람했다. CA는 특별히 이번 이벤트 참여자들을 위해 최고급 가죽 리클라이너 체어로 된 좌석과, 영화와 찰떡궁합인 치맥까지 마련해두었다. 다른 관객의 눈치 볼 일 없이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화를 즐긴 사우들은 <어벤저스> 속 영웅들의 유쾌하고 통쾌한 활약과 함께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었던 하루였다.



## 문화회식, 건강한 소통의 장

무비 데이의 목적은 단순히 흥행하는 영화를 관람하는 이벤트가 아니다. 업무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는 회식을 ‘술만 마시는 획일화된 회식’이 아니라, 문화생활을 누리는 즐거운 회식으로 바꿔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다. CA는 이번 무비 데이 이벤트를 시작으로 매월 특정 팀을 선정해 VR 게임, 스포츠 관람, 방 탈출, 맛집 투어, 점심 회식 등 다양한 형태로 문화 회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조직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하지만 CA와 같이 작지만 한뜻을 품고 움직이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은 또 다른 팀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작은 움직임이 모이고 모여, 결국엔 회사의 건강한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인 <어벤저스>의 영웅들처럼 말이다. ㉞





Hello NEXEN

부서와 업무를 막론하고 ‘협업’은 일의 능률과 성과를 높이는 데 개인의 능력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회식이나 면담 등과 같이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 조율할 수 있는 자리는 또 다른 업무의 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식은 다양한 직급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만큼 자칫 딱딱한 분위기로 흘러가거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집중하기 힘들 때가 많다. 더욱이 이제 막 입사한 신규 사원이라면 회식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연구소에서는 일반적인 회식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더욱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긴밀한 소통을 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Open Chatting Time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Open Chatting Time은 신규로 합류한 경력 및 신입 사원의 조직 적응 지원 및 기존 인원과의 협업 시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동일 직급의 6명 내 소규모 인원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만나는 자리다. 여러 직급이 함께하는 회식이나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간담회와 같이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공통분모를 가진 사원들끼리 서로의 고충과 의견을 나누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의 장인 것이다.

5월의 Open Chatting Time은 15일과 29일, 두 번에 걸쳐 시행됐다. 각각 6명의 연구원들이 참석했고, 약 1시간 동안 식사와 담소를 나누며 서로의 업무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대화의 주제를 미리 정하지 않았음에도 어색할 거란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더욱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 나갔다. 식사와 대화가 끝난 후에는 간단한 게임을 통해 선정된 2명의 연구원에게 행운의 선물을 전달하였다. Open Chatting Time을 통해 ‘One&Open R&D(하나의 목표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는 연구소)’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소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㉞

## 연구소 협업 Synergy Up! ‘Open Chatting Time’

연구소 신규 사원의 조직 적응 및 기존 인원과의 협업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소통의 자리 Open Chatting Time이 5월 15일과 29일, 2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는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글 연구운영팀 김수민 연구원





# 서늘한 여름을 만나다 영남알프스

폭폭 찌는 폭염 속, 일 년 내내 하얀 눈으로 뒤덮인 유럽의 알프스 산맥은 상상만으로도 시원하다. 하지만 멀리 갈 필요 없다. 우리나라에도 유럽의 알프스처럼 한여름 더위를 녹여줄 영남알프스가 있으니까. 한여름에 얼음이 여는 얼음골부터 호박소와 오천평반석, 케이블카까지 영남알프스의 서늘한 여름 체험 스폿을 소개한다.

글 유인용 기자 취재 협조 밀양시청, 얼음골 관리소





### INFO 얼음골

- 주소 :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산 95-2
- 이용 요금 : 성인 1,000원,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700원
- 문의 : 055-356-5640

밀양은 경상남도에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졌다. 60%는 산림이고 시의 중앙을 관통하는 밀양강은 낙동강으로 뻗어나가니 말 그대로 산 좋고 물 좋은 동네다. 산이 많으니 등산 코스로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시의 북동쪽에 위치한 영남알프스는 가지산, 천황산, 재약산, 백운산 등의 명산을 아우르는 곳으로 많은 등산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얼음골을 비롯해 호박소 등 볼거리가 많고 케이블카도 탈 수 있어 사계절 내내 방문객들이 많다.

### 여름엔 열고 겨울엔 녹는 얼음골

재약산 북쪽 중턱에 위치한 얼음골은 자연의 힘으로 얼음이 어는 신비한 곳이다. 날이 풀리는 3월 즈음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해 삼복더위에도 얼음이 맺혀 있고, 8월이 지나 날이 선선해지면 오히려 얼음이 다 녹아버린다 하니 여름에 가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 얼음골 매표소를 지나면 통일신라시대 사찰인 천황사가 정면에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오른쪽으로 다리가 놓여 있다. 다리를 건너면 본격적으로 골짜기가 시작되고 온도가 사뭇 달라진다. 다리를 건너면서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을 함께 건너는 느낌이 든다. 천황사를 지나 등산로를 오르면 골짜기를 따라 계곡물이 흘러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얼음골은 한여름에도 계곡물 온도가 4~8℃로 무척 차가워 10분 이상 발을 담그고 있기 힘들 정도라고 한다. 밀양은 전국에서도 여름 기온이 높기로 유명한 곳인데, 밀양 시내가 35℃를 웃도는 고온 현상을 보이더라도 얼음골 일대는 가을 날씨처럼 선선하다고. 계곡을 거슬러 결빙지가 있는 곳으로 계속 오르다 보면 오른쪽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암석 조각들이 비탈면을 따라 쌓여 있는 광경이 보인다. 우리말로 '너덜경'이라고 불리는 지대로 얼음골의 또 다른 볼거리다. 빙하기를 지나며 열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다 조각난 암석들이 오랜 기간을 거쳐 쌓이면서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수만 년의 역사를 간직한 돌들을 감상하다 보면 결빙지에 금방 닿는다.

### 바위틈에 맺힌 천연 얼음의 신비

얼음골 입구에서 15분 정도 오르면 결빙지가 나온다. 튼튼 대로 결빙지에서는 더운 날씨에도 얼음이 맺혀 있는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결빙지도 너덜경의 일부인데 암석 틈 사이사이를 흰 얼음이 메우고 있는 모양새다.

골짜기를 따라 부는 바람도 얼음을 품은 듯 서늘해 등산로를 올라오는 길에 흘린 땀이 금세 마른다. 과거에는 얼음골에서 고드름을 따 지게로 날랐을 정도로 양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자연이 많이 훼손돼 지금은 그렇게 많은 양의 얼음을 보긴 어렵다. 결빙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보호 구역이라 얼음을 직접 만져볼 수는 없지만, '천연 얼음'을 구경하다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함이 느껴진다.

날이 더우면 얼음이 열고 날이 추워지면 오히려 얼음이 녹아버리는 얼음골의 신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너덜경 아래로 흐르는 지하수가 기화하면서 열을 소모해 그 냉기로 얼음이 언다는 설, 겨울 동안 너덜경의 암석 사이사이에 흡수됐던 한기가 여름에 방출되면서 얼음이 맺힌다는 설, 지형 특성상 계절의 변화에 공기가 빠르게 적응하지 못해 계절이 늦게 흘러간다는 설 등이다.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신비로운 얼음골이다.

또한 결빙지 지면은 한여름에도 0℃를 유지해 얼음이 녹지 않는다. 얼음을 관찰할 수 있는 결빙지는 일부 지역이지만 얼음골과 계곡 일대가 다 시원해 한여름의 무더위를 식히기 좋은 피서지다. 차가운 계곡물에 풍덩 빠져 물놀이를 즐겨도 좋고, 매표소 앞쪽 계곡에서는 캠핑도 가능하다. 결빙지 위쪽으로는 천황산과 재약산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나 있어 시원한 얼음골 바람을 맞으며 산을 오르는 재미가 있다.





### 놓치기 아쉬운 포토 스팟, 호박소와 오천평반석

얼음골 인근에는 얼음골 외에도 신기한 지형들이 또 있다. 얼음골 맞은편의 백운산 기슭에 자리한 호박소와 오천평반석이다. 호박소는 계곡을 타고 흘러 내려온 물이 움푹 고여 있는 모양새가 절구에 담긴 호박과 닮았다고 해 이름 붙여진 물웅덩이다. 얼음골에서 나와 큰길을 따라 2km가량 더 들어가면 호박소 입구가 나오는데 입구에서 5분 정도만 올라가면 나무에 둘러싸인 호박소를 만날 수 있다.

돌 사이로 물이 흘러 내려오는 일반적인 계곡과 달리 호박소는 물이 흐른 모양에 따라 돌들이 반질반질하게 닳여 있다. 화강암이 오랜 기간 물에 씻기면서 지금과 같은 모양이 만들어졌다. 흰 빛깔의 화강암과 짙은 초록빛 물이 대조를 이루는 풍경이 아름다워 등산객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포토 스팟이다.

호박소는 보기보다 깊이가 꽤 깊다. 옛사람들이 깊이를 가늠해보고자 명주실 끝에 돌을 묶어 호박소에 담가봤는데, 실타래 하나를 다 풀어도 그 끝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호박소는 지금도 안전을 위해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편 호박소 입구에서 호박소 반대편으로 15분 정도 오르면 오천평반석이다. 오천평반석은 돌 하나의 넓이가 5,000평에 다다른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과연 계곡을 따라 오르다 보면 한쪽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돌이 평평하게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말 5,000평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넓은 반석 위로 물과 바람에 침식된 흔적이 남아 신비한 느낌을 준다. 돌이 판판해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기도 좋고, 백운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의 쉼터가 되기도 한다.



### INFO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

- **이용 시간** : 상행-첫차 09:20(평일), 08:30(주말 및 공휴일), 막차 17:00 / 하행-막차 17:50
- **이용 요금** : 성인 1만 2,000원 / 청소년 1만 원 / 초등학생 9,000원(왕복만 가능)
- **주소** : 경남 밀양시 산내면 얼음골로 241
- **문의** : 055-359-3000

### 케이블카 타고 영남알프스 오르기

영남알프스의 수려한 풍경을 감상하고 싶지만 등산은 부담스럽다면 얼음골 인근의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를 이용해보자. 해발고도 1,020m의 상부 승강장까지 1.8km 거리를 10분 만에 이동한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다 보면 맞은편으로 백운산이 있다. 백운산에는 우스갯소리로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인다'는 백호바위가 있다. 초록빛 나무 사이로 군데군데 바위가 드러난 모습이 멀리서 보면 한 마리 백호와 같다 해서 이름 붙여졌다. 크게 뜬 눈, 반쯤 벌린 입, 웅맹한 네 다리와 쪽 뺨은 꼬리까지 영락없는 백호의 모습이다. 케이블카 창 너머로 백운산 백호를 찾다 보면 금세 꼭대기에 도착한다.

상부 승강장에는 '하늘사랑길'이라 불리는 나무데크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하늘사랑길을 따라 15분 정도 걸으면 전망대가 나온다. 전망대에서는 영남알프스가 병풍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보인다. 탁 트인 초록빛 산자락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절로 시원해진다. 전망대만 둘러보고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도 되고, 주변 산으로 등산을 즐길 수도 있다. 상부 승강장에서 능동산, 천황산, 재약산 등 주변 주요 산으로 등산로가 조성돼 있다. 단, 다른 지역으로 하산해 케이블카를 편도만 이용하더라도 케이블카 이용권은 왕복권으로만 구입 가능하다.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 인근 지역은 고도가 높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무척 시원하다. 다소 쌀쌀할 수 있으니 얇은 겂옷을 챙겨 가길 권한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는 날씨에 따라 운행 스케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㉞





#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 템포 쉬어가기

우리는 그동안 빠른 속도로 결과물을 내는 데만 익숙해져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조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 곁에는 늘 함께하는 가족과 친구가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어떤 시간을 보냈나요? 넥센인들이 더 멀리 가기 위해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쉬어간 곳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정리 정유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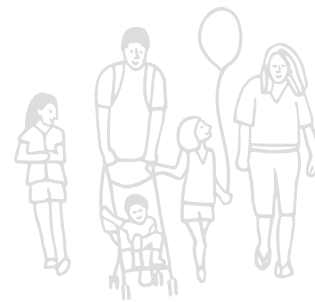


## (CP) 생산관제계 이호섭

새 식구로 맞이한 아기와 함께 진해 균형제에 봄나들이 다녀왔어요. 둘이 걸었던 벚꽃길을 셋이 걸으니 즐거움도 배가 되네요. 화사하게 만개한 벚꽃 아래 우리 가족의 추억 담아 보냅니다!



## 소중한 사람들 모두 꽃길만 걷게 해줄게



## (YP) 생산기술팀 손준영 대리

봄에 지인들과 가족 동반으로 꽃놀이를 다녀왔습니다. 가까운 황산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으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 품질경영팀 임광규 과장

대구 네이처파크에서 가족과 함께 5월 연휴를 보냈어요. 양산에서 조금 멀긴 하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여러 동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직접 만져볼 수 있어서 아이도 어른도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동물원 겸 식물원인데 걷다 보면 사진 찍기 예쁜 장소가 많아 아기자기한 곳이었어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곳이라 적극 추천합니다. ♡







LIFESTYLE | We류브



### (CP) 전기파트 노영우 과장

어린이날에 모처럼 가족과 여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수 가는 길에 순천 장미정원을 거쳐 여수 아쿠아플라넷, 오동도, 케이블카 등...  
둘째가 태어나고 처음 가는 가족 나들이라 더욱 신나게 보내고 온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서 바깥 활동이 조금 힘들었지만 여수의 바라는 시원하고 딱 좋았어요.  
가을에 한 번 더 가고 싶어지는 여수 여행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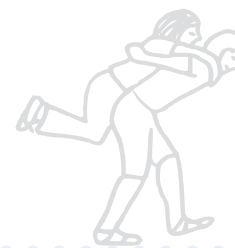
### 영업1팀 주호진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 친구들과 쓰러질 뻔했던 우정을 다시 쌓고 왔습니다.  
지나는 길에 한 커플의 사진을 찍어주고 그분들에게 소품을 빌려 저희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 실차평가팀 김현수 주임연구원

4월 마지막 주 같은 팀 정철호 책임연구원과 같이 낚시 갔던 사진입니다.  
전라도 장흥으로 갯바위 낚시를 갔는데, 49cm나 되는 감성돔을 잡아 방파제에서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 탁 트인 바다를 보며 답답한 마음 뽕 뚫리게

### (YP) 공정관리파트 방환배

처가 친척들과 다 같이 거제에 있는 이수도라는 섬에 놀러 갔습니다.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 설계해석팀 황성욱 책임연구원

오랜만에 식구들과 부산 송정 앞바다에 갔어요.  
첫째 아들이 시원한 바닷바람에 두 팔 벌리고 정말 좋아했어요.



### 노사협력팀 정준욱 팀장

저희 부부는 회를 아주 좋아합니다.  
봄에는 도다리, 여름에는 송어, 가을에는 전어, 겨울에는 감성돔...  
이렇게 계절별로 생선회를 즐기는 것도 회 마니아로서 참 행복합니다. 특히 넓은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 직접 낚시를 해 먹는 자연산 생선회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에는 낚시를 주로 다닙니다.  
봄에는 역시 도다리가 최고죠!  
지난 4월, 저희 부부는 지인들과 함께 포항에 봄 도다리 사냥을 갔습니다. 도다리 낚시 중 아내가 킁킁거리면서 낚아 올린 아귀! 커다란 아귀를 들고 행복해하는 저희 부부 사진입니다.  
멋있죠? 아귀는 결국 구수한 지리가 되어 저희 부부의 몸보신을 해주었습니다.







### (YP) 설비보전파트 이희석 파트장

어버이날을 맞아 홀로 계신 어머니와 함께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찻사발축제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함께 하고 있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째가 드라마 세트장에 위치한 광화문 앞에서 찍어준 사진입니다.



### 인사팀 박성준 대리

지난 5월 연휴에 부모님을 모시고 대만 타이베이 근교를 다녀왔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과 평소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아쉬웠는데, 연휴에 맞춰 휴가를 내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아이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할 수 있어서 더 뿌듯했습니다.



### 채널운영파트 김종왕 과장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들과 카라반 캠핑을 하고 용인민속촌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아이들이 신나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 내구성능계 윤한수

가족과 떠난 경주 여행입니다. '추억의 달동네'에서 옛 추억을 되짚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옛 교복을 입고 딸과의 인생샷 한 컷!



## 낯선 땅, 낯선 곳에서 새로운 모습을 함께

### (YP) 공정관리파트 김상문 파트장

고등학교 졸업 후 25년간 이어온 모임입니다. 친구들과끼리 모이던 술자리에서 이젠 20명 넘는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엔 경남 양산 배내골에서 모여 평생 함께할 우정을 쌓았습니다.



### (YP) 전기파트 박장수

이번 5월 연휴에 부여로 역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부여 일대는 세계유산, 국보 및 문화재로 등재된 곳이 많습니다. 이동 동선도 짧고 유명한 맛집도 많아 가족과 여행하기에 좋았습니다. 사진은 정림사에서 가족과 한 컷 찍었습니다.



### 문화혁신팀 이재엽 팀장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가족의 나들이. 시작은 더 넥센 유니버시티로부터~

### OE품질팀 오영렬 부장

NETC에서 근무하는 넥센 러닝 멤버들과 함께 6월 12일에 개최되는 프랑크푸르트 마라톤에 나가기 위해 연습을 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프랑크푸르트 시내로 마라톤 소풍을 떠난 것이죠!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열성 러닝 멤버들이 기록 단축도 하고, 친목 도모도 하고, 넥센인의 자부심까지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봄바람에 설레는

# 넥센인을 위한 문화생활



푹푹 찌는 더위에 짜증만 더해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면, 떠나야 할 시간이다.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기 좋은 문화 콘텐츠들을 소개한다.

정리 정유미



짜릿한 손맛에 멀리 달아나는 무더위

## 봉화 은어축제

맑고 시원한 내성천에 뛰어들어 은어와 한판 승부를 벌이자. 쫄쫄하게 도망가는 은어를 맨손으로 잡거나, 물고기 잡이 그물인 반두를 사용해 잡아보자. 짜릿한 손맛에 더위는 까맣게 잊을 것이다. 은어는 담백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아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민물고기의 귀족이라고 한다. 직접 잡은 은어도 맛보고 수상 놀이기구와 래프팅, 수중 줄다리기 등으로 한여름을 제대로 즐겨보자.

기간 7월 27일~8월 4일  
장소 경북 봉화읍 체육공원 내성천 일원  
문의 054-679-6311~4

## 축제



넘실대는 파도와 함께 부서지는 무더위

## 부산 바다축제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등 부산 5개 해수욕장에서 폭염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바다축제가 열린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인공 풀장을 설치하고 워터카니발을 비롯해 신나는 음악과 함께하는 나이트 풀 파티가 열린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장애인 한바다축제와 국내외 댄스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댄스파티, 송정해수욕장에서는 현인가요제를 개최하고, 다대포해수욕장에서는 부산 청소년 바다축제가 동시에 열린다.

기간 8월 2일~8월 6일  
장소 부산 시내 주요 해수욕장  
문의 051-501-6051



부모님과 함께 즐기는 콘서트, 미스트롯이어라

## 내일은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 창원

중년들의 '프로듀스101,' 트로트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이 1대 우승자 송가인을 배출하며 대망의 막을 내렸다. 요즘 공중파에서도 10%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기 어려운데 5월 2일 최종회에서는 무려 18.1%라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5월 4일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8월 17일 제주까지 전국투어 콘서트를 하는데, 7월 6일 창원에서도 콘서트가 열린다. 마음을 흔드는 애절한 목소리와 구성진 가락으로 트로트를 즐겨보자.

기간 7월 6일  
장소 창원컨벤션센터  
문의 1566-9621

## 공연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기는 꿀 떨어지는 콘서트

## 2019 제이슨 므라즈 내한공연 - 부산

따뜻하고 달콤한 어쿠스틱 음악으로 유명한 제이슨 므라즈가 내한한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티스트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한공연도 매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공연은 정규 6집 <Know.> 발매를 기념해 2018년 7월 미국 클리블랜드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등을 거쳐 세계투어를 이어가며 우리나라 서울과 부산에서도 공연이 진행된다. 다양한 악기들과 어우러지는 제이슨 므라즈의 노래를 통해 어쿠스틱 라이브의 정수를 느껴보자.

기간 7월 26일  
장소 벅스코 제1전시장  
문의 1566-5490



아이와 함께 즐기는 시원하고 아름다운 공연

##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공주> - 김해

여름 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 좋은 공연을 소개한다. 차이콥스키 3대 발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발레와 피겨스케이팅이 어우러진 아이스발레로 다시 태어났다. 러시아의 보석이라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이 품격 있는 공연을 보여준다.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과 얼음 위를 가르는 배우들의 우아한 안무로 여름을 무더위를 물리쳐보자.

기간 7월 30일~7월 31일  
장소 김해서부문화센터 하늬홀  
문의 055-344-1800







내가 상상했던 인생샷, 직접 찍어보자

#### 감성사진관 - 부산

카메라 렌즈 앞에서 긴장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매일 밤 당신이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다면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라는 콘셉트로 20개의 다양한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다. 꿈의 시작부터 현재의 나까지 스토리를 따라 모험하듯 전시장을 누비면서 자유롭게 사진을 찍어보자.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스마트폰 속의 사진을 빠르고 쉽게 인화할 수 있는 기계를 구비해놓아 전시회의 추억을 바로 인화해서 간직할 수 있다.

기간 2018년 10월 6일~2019년 10월 31일

장소 본다빈치스퀘어 부산

문의 070-8880-0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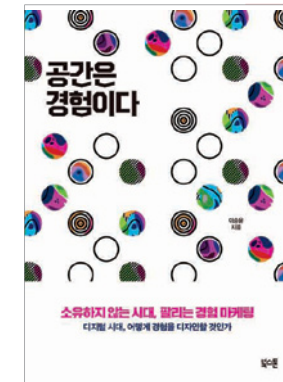


#### 빈센트 나의 빈센트

정여울, 21세기북스

정여울 작가가 지난 10년간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곳곳을 찾아다니며 빈센트 반 고흐의 흔적을 쫓은 것을 책으로 엮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보기 위해 빛까지 내가며 여행을 떠났다는 정여울 작가. 울어름 휴가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면 정여울 작가처럼 좋아하는 예술 작품을 찾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고흐덕후#그림보러#빛까지#고흐찾아삼만리



#### 공간은 경험이다

이승윤, 북스톤

요즘 사람들은 SNS에 인증샷을 올려 공유할 만한 장소를 찾는다.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 서러면 긴 줄 끝에 서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책은 공간을 통해 경험을 연결하는 경험 마케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특별한 경험을 위한 나만의 휴가 계획을 세워보자.

#놀고싶고#만지고싶어#경험하다보면#폭풍결제

## 전시

찰흙과 함께 날나라로 떠나는 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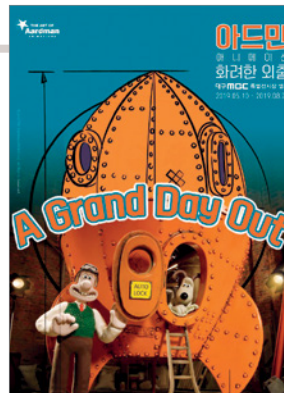
#### 아드만 애니메이션 : 화려한 외출

〈월레스와 그로밋〉으로 유명한 영국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아드만 스튜디오'가 대구를 찾아왔다. 아드만 애니메이션 전시회는 2015년 프랑스 파리를 시작으로 독일, 호주를 거쳐 서울에서 성공적인 전시를 마치고 대구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아드만 스튜디오의 초기 드로잉 작품들과, 드로잉을 보고 클레이 조각을 만들어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전시장에서 클레이 체험을 통해 나만의 양과 펍컨도 직접 만들어보자.

기간 5월 10일~8월 25일

장소 대구MBC 1층 특별전시장 엠가

문의 053-744-5400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상상력

#### 에릭 요한슨 사진전

대한민국과 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스웨덴 초현실주의 사진 작가 에릭 요한슨의 사진전이 아시아 최초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그의 작품은 실제 사진으로 찍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의 상상력과 세심한 작업을 거쳐 작품 속에서 가능한 세계로 그려진다. 에릭 요한슨은 TED 강연을 통해 작품 제작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를 제한하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상상력입니다"라고 말하는 에릭 요한슨의 환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보자.

기간 6월 5일~9월 15일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문의 02-837-6611



## 책

#### 실용커피서적

조원진, 따비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대단하다. 5월 7일 '커피업계의 애플'이라는 블루보틀 한국 1호점이 문을 열었을 때도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 책은 '커피 덕후'라는 저자가 커피의 매력에 푹 빠져 즐기면서 만난 인연과 경험을 책으로 엮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보자.

#커피덕후#매일매일#커피한잔#커피값모으면차한대



#### 키크니의 무엇이든 그려드립니다!

키크니, 아르테

내가 단 짧은 댓글이 만화로 그려진다면? 이 책은 작가가 SNS에서 댓글을 통해 받은 고민이나 사연에 한 컷의 그림으로 답한 것을 엮은 책이다. 일상 속의 작은 바람과 상상을 한 컷의 그림으로 재치 있게 그려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무더위도 이 책을 보면서 피식 웃으며 이겨내보자.

#진짜로#키커서#키크니#대신그려드립니다





나만의 한 단어

# 넥센 싱크빅

한 가지 사물을 보고 사람마다 떠올리는 느낌이나 생각은 제각각이다.  
관점의 차이인 셈이다. 거기서 우리의 가능성은 시작된다.  
언제 어디서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틀린 것은 없다. 다를 뿐이다. 넥센인만의 기발한 의식 흐름을  
공유해보자.

글 이다영

하늘을  
나는  
자동차

미래 사회

※ 빈칸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채워서  
사진 찍은 후  
이메일(hellonexen@nexentire.com)로  
그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기재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상상력

만남

대화



시간

약속

소통

기록

일정

다이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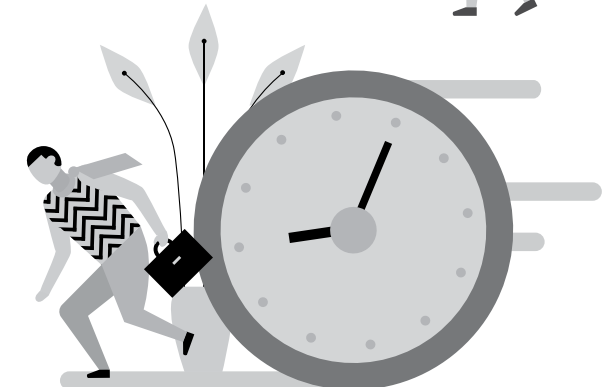
계획

자아실현

잠재력

가능성

## Tomorrow







쓰레기 없는 세상,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 불편해도 괜찮아!

현재 지구에선 1초에 10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된다. 이렇게 생산된 플라스틱의 10%는 쓰레기가 되어 바다에 방출된다. 얼마 지나지 않은 미래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나온다. '친(親)환경'이 아닌 '필(必)환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운동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글 이다영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쓰레기가 남는다. 내 손을 떠난 모든 것들은 결국 쓰레기가 되어 지구를 오염시킨다. 일회용품의 발명으로 인해 사람들은 빠르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지만 지구에게 그것은 재앙의 시작이었다. 이제는 우리가 지구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것은 비단 지구를 위한 길만은 아니다. 지구가 없다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아가며 어디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어렵지만 꼭 필요한 환경 운동, 삶 속에서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생활의 한 부분으로 이 캠페인을 받아들여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나부터 해보자'를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언제까지나 지구가 품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지구는 현재 쓰레기 포화 상태다. 이제는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다.

사실 삶 속에 '제로 웨이스트'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필연적으로 불편함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일회용품으로 가득 쌓인 쓰레기통의 쓰레기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불편하지만 이 캠페인의 도입이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어렵지만 비닐 대신 장바구니를,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일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조금 적응되었다면 쓰고 버리는 휴지 대신 면 휴지를, 일회용 생리대 대신 면 생리대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빨아서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친환경적인 면 소재 덕에 많은 여성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생리통이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다. 또 약간의 관심만 있다면 시도해볼 만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일회용 칫솔과 플라스틱 면봉에 대한 것이다. 칫솔과 면봉은 그 소비가 엄청난 것에 비례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도 어마어마하다. 색이 입혀진 칫솔의 플라스틱 손잡이는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하고 면봉 또한 작지만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된다. 요즘은 약간의 수고만 들인다면 어렵지 않게 대나무나 사탕수수 같은 친환경 소재로 만든 칫솔을 구입할 수 있다. 면봉 또한 가급적 나무 소재를 이용하고, 플라스틱 면봉의 경우 반드시 분리배출 한다.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나날이 뜨거워지며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독일 베를린의 대형마켓 '오리지널 언패어팩트(Original Unverpackt)' 제품들은 용기에 담겨 진열되어 있는데, 소비자들이 포장재가 아닌 용기를 직접 가져와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매장 안의 모든 곡물·음료 등의 식료품뿐만 아니라 삼투·차약 등 400여 가지 상품이 길고 둥근 유리병 안에 들어 있어 레버를 당기면 내용물이 나온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또한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연희동의 작은 카페 '보틀 팩토리(Bottle Factory)'에서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채우장'은 SNS를 통해 장터에서 판매할 품목을 보고 미리 구매를 결정한 후 그에 맞는 용기를 준비해 가 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품목은 다양하지 않지만 자신이 원하는 분량만큼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사과 한 알도 구매 가능한 시스템이다.

A hand is shown holding the handles of a brown, reusable tote bag. The bag is filled with fresh produce, including several red tomatoes, a yellow corn cob, and large green leafy vegetables like lettuce or spinach. The background is plain white.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어제를 담고  
오늘을 보고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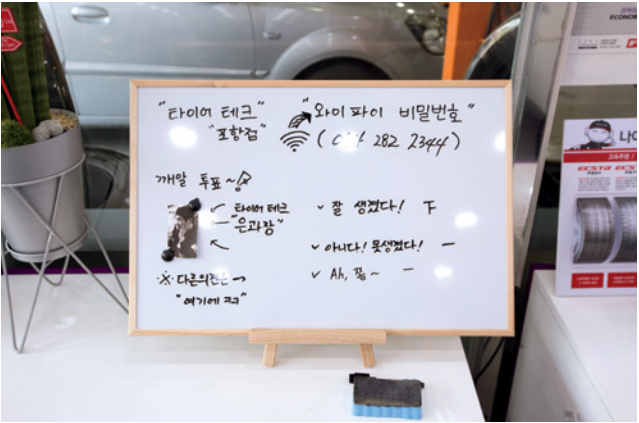




환상의 케미로 환상의 서비스를  
**타이어테크 포항점**

지난 3월 타이어테크 포항점이 오픈했다. 포항에서 타이어 하면 타이어테크가 떠오르게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오픈한 타이어테크 포항점은 기다릴 틈을 주지 않는 빠른 응대와 서비스로 고객을 사로잡고 있다. 이동우 대표와 은기영 과장을 만나 타이어테크 포항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이다영 사진 이맹호



**이동우 대표 :** 저희 타이어테크 포항점은 신규 오픈이 아닌, 기존에 있던 타이어 매장을 인수 해 지난 3월 새롭게 오픈한 매장입니다.



**은기영 과장 :** 운영진이 바뀐 만큼 그에 따른 책임감이 느껴져, 항상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객을 응대합니다.



**이동우 대표 :** 저희는 항상 고객을 밖에서 맞이 하고 밖에서 배웅하자는 모토로 움직입니다. 매장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나가시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밝은 모습을 고객들도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은기영 과장 :** 밝게 일할 수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에너지가 고객들에게도 전달되었는지 소개가 많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고객의 소개로 또 다른 고객이 생길 때, 그때가 가장 보람칩니다. 가장 좋은 건 역시 입소문 아니겠습니까?







**이동우 대표** : 기본적으로 매장이 깔끔해야 오시는 분들이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밖에서 봤을 때 '여기가 타이어 매장이자'라는 것이 눈에 확 띄어 있도록 현수막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은기영 과장** :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드리는데, 방문하고 가신 후에는 항상 전화를 드리고 매장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고객의 차량 정보를 프로그램으로 입력해두고 타이어 교체나 위치 교환 시기를 관리해드립니다.



**이동우 대표** : 제가 정비 전문가이고 은 과장이 타이어 전문가인데 이 케미도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타이어 매장에서 정비 따로 타이어 교체 따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 고객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은기영 과장** : 대표님과 포항점 오픈 전부터 오랫동안 함께 일해와서 이제는 척 하면 척 서로 잘 챙겨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좋은 합을 이루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시너지는 고객한테까지 이어집니다. 저희가 합이 잘 맞으니 얼굴 붉힐 일도 없고 항상 밝은 얼굴로 빠르게 응대할 수 있습니다.



**이동우 대표** : 기존에 비해 매출이 상승하는 추세라 신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기영 과장** : 저희가 신이 나야 고객들도 즐겁게 정비받고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우 대표** : 웃으며 돌아가실 수 있는 매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기영 과장** :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늘 힘쓰겠습니다. 타이어테크 포항점 많이 방문해주세요.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488  
영업시간 평일 08:30~19:30 / 일요일 10:00~17:00(일요일 정상영업)  
문의 054-282-2344



이정수 파트장,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 전기 안전을 책임지는 넥센타이어의 파수꾼

글 정유미

5월 21일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에서 넥센타이어 창녕 공장 전기 파트장 이정수 차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 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해 1995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전기 안전 분야 최대의 행사다. 전기 재해를 예방해 국민 안전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하고, 안전 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로, 올해 22회째를 맞이하며 상의 무게감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시상식에 전국 각지의 전기업계 종사자와 기업인, 유공자 가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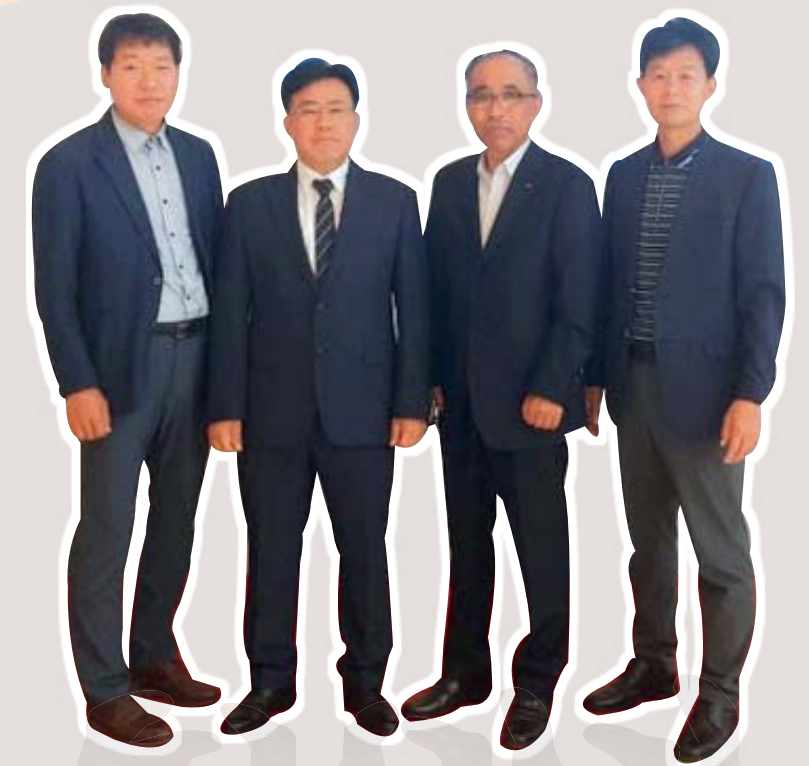
500여 명이 참석해 전기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정수 차장은 넥센타이어 창녕 공장의 전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평소에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썼으며, 넥센타이어가 전기 안전사고 없는 무재해 공장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왔다. 이정수 차장은 “전기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넥센타이어에서 전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㉞**



창녕 공장 전기파트장  
이정수 차장의 소감 한마디

전기 안전사고는 평소 철저한 설비 관리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지속적인 설비 예방 보전으로 전기 안전사고 없는 무재해 공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19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과 관련해 항상 적극적, 긍정적인 마인드로 근무에 임하시는 CP 공무팀 팀원들과 전기 안전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관련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이정수 파트장 ▶



# NEWS

최적화된 성능으로 합리적인 소비자를 위한 ‘i.Q series 1’, 신제품 출시



넥센타이어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내외 승용차 및 SUV 기본형 타이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사계절용 타이어 ‘i.Q series 1’을 지난 4월 출시했다.

i.Q 시리즈는 ‘incredible Quality’라는 의미로,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성능에 대한 운전자의 다양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고자 새롭게 출시된 신규 브랜드다. i.Q 브랜드 첫 번째 제품인 ‘i.Q series 1’은 최적의 컴파운드 조합으로 마모 성능을 기존 제품 대비 5% 향상시켰으며, 급격한 핸들 조작 시 차량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한 솔더 블록 보강 설계로 탁월한 핸들링 및 마른 노면 제동 성능을 자랑한다. 또한 우수한 배수 성능을 제공해 젖은 노면에서의 수막 현상을 예방함으로써 빗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사계절용 타이어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뛰어난 승차감과 성능을 갖춘 ‘i.Q series 1’은 가까운 넥센타이어 전문점 및 타이어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 NEWS


미국 혁신 플랫폼 ‘플러그 앤 플레이’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넥센타이어가 세계적인 기업 혁신 플랫폼이자 스타트업 액셀레이터인 ‘플러그 앤 플레이 (Plug and Play)’와 6월 14일(한국 시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미래형 선진 기술 개발과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해 미국 액셀레이터(스타트업 투자 및 컨설팅 기관) 업계 선두주자인 ‘플러그 앤 플레이’와 파트너십을 체결, 미래 사업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플러그 앤 플레이’는 굴지의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한 ‘페이팔’, ‘렌딩클럽’, ‘드롭박스’, ‘사운드하운드’ 등 실리콘밸리 유망 기업들을 초기에 발굴해 육성한 바 있다. 넥센타이어는 플러그 앤 플레이를 통해 타이어를 포함한 자동차 업계에서 다양한 플랫폼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 스타트업과의 제휴 및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기술적·사업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과의 제휴 및 투자를 통해 회사의 ‘오픈 R&D’ 철학을 더욱 빠르게 실행해나감으로써 혁신적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체결은 주요 OEM 업체, 차량 관련 부품 공급 업체, 최상위 벤처캐피털 업체, 스타트업 대표 등 업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플러그 앤 플레이 서머 엑스포(Summer Expo)’ 행사가 진행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 P&P 본사에서 이루어졌다. 





##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에 참여를 원하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 우리 팀 및 동호회 자랑하기
- ▶ 가족과 특별한 시간 보내기
- ▶ 동료와 함께 추억 만들기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 독자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QR코드를 확인하시면  
독자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헬로우 넥센〉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문화혁신팀 김희진 대리

hellonexen@nexentire.com

〈헬로우 넥센〉독자 당첨자

전경숙  
유근혜  
조한석  
강호우

# 타이어 렌탈 서비스 이용해보셨어요?

타이어 언제 교체하세요?  
엔진오일은 언제 교체하세요?

타이어가 마모 혹은 파손되어도 무상 교체해주고  
엔진오일도 점검에서 교체까지 무상으로 해 드립니다.

합리적인 타이어 구매 제안 '타이어 렌탈'  
고객님께 딱 맞는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자유 렌탈**

고객님 마음대로 렌탈 상품 설계 가능

문의전화 1855-0100

타이어렌탈



**NEXT LEVEL**

넥센타이어가 만든 신개념 렌탈서비스





BACK2BACK  
PREMIER LEAGUE  
CHAMPIONS  
18/19



NEXEN NEXEN TIRE

